

消費函數 Model의 展開

陳 世 仁

目 次

- 序論. 消費函數論의 問題提起
- 一. 戰後美國에 있어서 消費函數論爭
- 二. Keynes 총체線型消費函數論의 Model
- 三. Duesenberry 相對所得假說의 Model
 - § 1. 相對所得개념의 導入
 - § 2. Demonstration Effect에 의한 消費의 社會性
 - § 3. Ratchet Effect에 의한 消費의 時間性
- 四. 綜合 Model의 檢討
 - § 1. Tobin의 流動資産假說
 - § 2. Friedman의 恒常所得假說
- 結論. 消費函數 Model의 展望

序論 消費函數論의 問題提起

財貨를 消費한다는 것은 人間生活에 있어서 불가피하다. 人間이 生存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거름 나아가서 현대적 文化生活을 누리기에는 더욱 그러하다. 그러므로 社會가 발전됨에 따라서 여러가지 財貨가 人間の 文化的 生活을 충족시켜 주기 위하여 필요로 됨은 물론이다. 설령 아무리 많은 財貨를 生産한들 그 財貨를 消費하지 않으면 生産은 다시 되풀이 될수 없을뿐만 아니라 生産된 財貨는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財貨가 최종目的인 消費化로 이끄러지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을 처리하기에 골몰할 것이다. 財貨는 消費됨으로써 비로소 제구실을 다하게 되는 셈이다. 「케인즈」도 財貨生産의 궁극의 目的은 消費에 있다고 까지 말했다.

그렇다고 해서 한없는 人間の 욕망을 다 채워준다고는 생각 할 수 없다. 즉 財貨消費에는 여러가지 制限이 가로 놓이게 된다. 이를테면 돈이 없어서 마음 놓고 물건을 살수 없다는지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없다는지 또는 자기의 입맛에 맞는 물건이 쉽사리 발견되지 못한다는지 하여 여러가지 條件이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문제되는 것은 財貨를 需要하려는 사람의 손에 들어올 수 있는 貨幣所得일 것이다. 오늘날 資本主義社會에서는 여러가지로 人間の 嗜好에 맞추어서 消費財를 生産하고 그것이 또한 國境을 넘어서까지 交流되기 때문에 입

에 맞는 물건을 살수 없다는 일은 덜게 된다.

이렇게 문제를 추려보면 결국 可處分所得을 많이 얻을수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을 마음껏 消費할 수 있다는 결론으로 되돌아가게 된다. 따라서 個人은 어떤 消費財를 얼마만큼 需要할 것인가에 앞서 먼저 자기의 可處分所得을 돌보지 않을수 없게 된다. 즉 所得이 많고 적은데 따라서 消費도 많고 적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消費는 所得 다음에 생각할 문제이다. 다시 말하면 所得이 결정된 연후에 消費가 결정 되어진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추려 보면 所得과 消費와는 어떤 函數的關係에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所得이 獨立的變數가 되면 消費는 從屬的인 變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높은 所得者는 높은 消費者가 되고 반면에 낮은 所得者는 낮은 消費者가 된다는 당연한 命題에 도달케 되고 만다. 이런 관계를 생각하여 消費는 所得의 函數(function)가 된다고 規定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비단 이것은 個人的 所得과 消費 관계에서 뿐만아니라 社會全體面에서 본 所得과 消費관계에서도 同一한 函數관계가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관계는 일찍 우리들의 經濟生活에서 경험한 바 이지마는 그러나 이 관계를 하나의 理論으로 展開시키고 문제를提起시킨 것은 「케인즈」 이후의 일이다. 물론 Alfred Marshall (1842~1924)^①도 需要를 所得의 函數라고 하여 需要函數(Demand Function)를 밝힌바도 있지만은 消費가 可處分所得만의 函數라고 하여 理論으로 또는 實證으로 分析하기에 이르게된 것은 「케인즈」의 「一般理論」이 世上에 發表된후의 일이다.

「케인즈」는 그의 「一般理論」 가운데 무엇보다 가장 重要視한것은 消費函數 (Consumption Function) 또는 消費性向(Propensity to Consume)이었다^②. 「케인즈」經濟學의 三大支柱라고 할 수 있는, 이른바 消費性向, 資本의 限界効率및 流動性選好는 「케인즈」經濟學으로 하여금 오늘날과 같은 巨視經濟學으로 發展시켰던 것이다. 流動性選好와 利率에 의하여 결정된 投資水準의 變化는 限界消費性向을 媒介로 하여 國民所得을 乘數的으로 확대시켰던 것이다. 따라서 乘數的인 波及으로 所得을 확대시킨 근본적인 역할은 消費性向이다. 뿐만아니라 「케인즈」經濟學을 本質的으로 體系化시킨것이 消費性向이다. Post-Keynesian은 이문제에 대하여 여러 가지 중요한 論議를 거듭한 결과(Alvin Harvey Hansen (1887~)이나, Paul Anthony Samuelson (1915~) 및 Lawrence R. Klein (1920~) 등의 意見一致로 말미암아 消費性向 또는 消費函數는 「케인즈」體系的 重要な 礎石을 이루었던 것이다.

① Alfred Marshall, Principles of Economics, 1890.

② John Maynard Keynes, The General Theory of Employment, Interest and Money, 1936, pp. 89~112.

消費函數라는 개념은 理論的으로 극히 重要性을 띠고 있다. 첫째 그것은 이제까지의 經濟學에서 다루어지지 못했던 乘數理論을 낳게 되었다. 그것은 또한 貯蓄과 投資가 平衡되는 戰略的인 역할을 맡아보는 것이 利率의 變化가 아니라 그것은 오히려 國民所得 또는 有效需要의 變動이라고 論證했다.

消費函數개념은 統計的操作이 가능하기 때문에 經濟豫測, 經濟計劃을 세우는데 있어서 중요한 手段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計量經濟學者들의 消費函數의 實證的研究에 관한 業績이 높이 評價되고 있다.

消費문제에 관하여 현재 특히 看過할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 대두되고 있다. 그것은 다름아닌 消費者의 體質變化가 消費構造를 變化시키는 중요한 要因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要因은 消費者로 부터 生産者로 傳達되어 오히려 生産의 方向을 결정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生産者는 消費者의 嗜好에 따라서 生産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확실히 오늘날 現代社會에 있어서는 消費者가 王者적인 時代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실을 살펴볼 때 消費는 이미 『量에서 質로 變하는 時代』가 되어간다는 것을 알수 있다. 人間生活의 安定에서 오는 所得의 上昇은 量的으로만 消費支出을 하지 않고 人間の 文化的趣味와 嗜好에 따라서 質的으로 그 위치가 점차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다. 消費構造를 變化시키는 것은 이러한 諸要因이며 이것은 극히 重要視되고 있다. 그러므로 消費函數의 實證的研究에는 단순한 當期の 所得만을 變數로 잡을 수 없다는 점으로 戰後 美國에서 특히 經濟豫測에 관한 論爭이 展開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消費函數는 그 領域에 있어서 「케인즈」 이후 새로운 角度에서 문제가 제기되지 않을수 없었다. 이를테면 F. Modigliani^③와 J.S. Duesenberry^④의 相對所得假說이라든지 J. Tobin의 流動資産假說^⑤ 및 M. Friedman의 恒常所得假說^⑥등을 들수 있다.

一. 戰後 美國에 있어서 消費函數論爭

消費函數에 관하여 여러學者들은 그 實證的研究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第2次大戰後 美國에 있어서 經濟豫測을 위한 武器로서 이 消費函數문제에 論爭이 集

③ Franco Modigliani, "Fluctuations in the Saving-Income Ratio: A Problem in Economic Forecasting,"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11, 1948,

④ James S. Duesenberry, Income, Saving and the Theory of Consumer Behavior, 1952.

⑤ James Tobin, "Relative Income, Absolute Income, and Saving," i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honor of John Henry Williams, 19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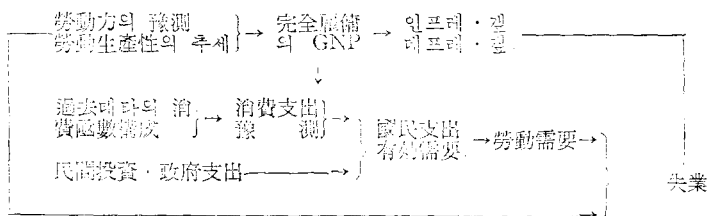
⑥ Milton 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1957.

두되었다. 그리하여 결국 「經濟豫測에 관한 論爭」이 「消費函數論爭」으로 까지 그 이름이 바뀌어지게 되었다.

戰後 豫測문제를 둘러싸고 「릿첵」·「바안스」등의 景氣觀測法을 비롯하여 「케인즈」經濟學을 土台로하여 經濟豫測을 했다. 그 뿐만아니라 Samuelson, Klein까지도 「케인즈」經濟學에서 消費函數의 安定性이 經濟豫測의 成否와 관련된다고 까지 말했다.

消費函數論爭의 展路는 消費函數論 그 자체 뿐만아니라 消費者行動論에 까지 達성을 갖게된 機緣이 되었다. 여기에 Modigliani, Duesenberry, Tobin 및 Klein 등의 積極적인 貢獻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은 豫測이라는 실현을 통하여 理論자 派가 발전한 實例인 것이다.

消費函數의 Model-building은 그것이 비단 經濟를 豫測하기 위한 무기가 될뿐 아니라 經濟學의 발전에도 큰 意義가 있는 것이다. 消費函數를 토대로 하여 經濟를 豫測하는데 있어서 그 方法論的順序는 다음과 같다.



이표에서는 전국 勞動力人口와 勞動生産性의 過去추測을 將來時點으로 연장하여 豫測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完全雇傭에 있어서 國民總生産 GNP를 구할려는 것이다. 따라서 GNP를 勞動生産性和 勞動力과를 서 곱한 것으로서 計算된다. 한편 그 完全雇傭에서 構成되는 消費支出은 過去 데타로써 構成되는 消費函數에 完全雇傭時의 GNP를 代入하여 유도한다. 이 消費支出과 豫期된 民間投資, 政府支出과의 合計는 有效需要의 推定額이 된다. 그런데 이額과 推定 GNP와의 差額은 有效需要가 많으면 인플레이·갇, 반대로 有效需要가 적으면 데프레이·갇에 해당된다. 他方 推定된 有效需要를 雇傭函數(雇傭有 有效需要의 函數)에 代入하면 勞動需要量이 얻어진다. 그런데 이것과 當初 想定된 勞動力人口(勞動供給)와의 差는 失業이 된다. 따라서 豫測에 있어서는 消費函數뿐만 아니라 雇傭函數도 計算하지 않으면 안된다.

消費支出을 可處分所得의 函數라고 하게되면 GNP와 可處分所得을 맺는 函數도 計測하지 않으면 안된다. 표에서는 民間投資와 政府支出은 이미 알고 있는 數라고 가정했지만은 이중에서 民間投資만을 未知數로하여 投資函數를 따로 구성할 수도 있을 것이다.

1945년에 전개된 消費函數論爭은, Everett E. Hagen, J.L. Mosak 및 A. Smithies

등의 豫測이 論爭의 對象이 되었다. 戰後 美國經濟가 계속 번영을 누릴수 있을가 그렇지 않으면 恐慌으로 빠질가 하는 문제가 당면課題가 되었다. 만약 戰後 급격히 軍事費 削減으로 不景氣와 失業의 발생이 豫測될 것 같으면 戰時中에 행했던 精巧한 統制機構를 유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반대로 인플레이가 계속되면 價格統制와 課稅를 완화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不景氣政策 또는 인플레이政策중 그 어느것이 알맞을가 하는 것이 문제된다. 이런 政策은 戰費와 관련되고 있다. 즉 戰費가 削減되어 軍隊가 復員됨에 따라서 生産, 雇傭에 영향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의 豫測에는 두 갈래가 있었다. 즉 more favorable projection과 less favorable projection이다. 이 두 예측은 1946年 第 1·4半期까지 동일했지마는 그후로는 相異했다. 전자는 1946年 1·4半期에 失業者가 810萬이 었지마는 1947年 2·4半期에는 560萬으로 감소되었다. 이에 반하여 후자는 다음 期까지 930萬으로 증대했다.

그러나 1946年 1·4半期の 實績은 270萬이었다. 國民總生産額및 그 구성部分에 상당한 誤差가 있었다. 특히 消費支出의 豫測은 實績 보다 18% 下廻하였다. 여기에 重要な 豫測의 理論의 支柱는 消費函數가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豫測의 失敗는 Keynes的 消費函數에서 부터 일어났다. 따라서 「케인즈」的 消費函數를 批判한 Woytinsky는 消費函數의 安定性을 주장했다. 消費函數는 景氣變動과 더불어 변동되었다. 더구나 戰後 經濟構造의 변동으로 유독 消費函數만이 安定的이 될수 없었다. 특히 戰時中 蓄積된 流動資産으로 말미암아 戰後 인플레이重壓이 될지 모른다고 Woytinsky는 말했다^⑦.

消費函數論爭의 발단이 있던 Everett E. Hagen^⑧의 豫測은 非耐久消費財에만 限하고 耐久消費財 서비스에 대한 支出은 포함되지 않았다. 만약 이것을 포함시켰더라면 消費函數는 精確한 豫測이 되었으리라고 Klein은 말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反證하는데 學者들은 두가지를 들고 있다. 그 하나는 1929~41年의 所得·消費의 統計에서 도출된 결과 消費函數에 맞추게 되면 負의 貯蓄이 되어야 할것이 實績은 正의 貯蓄으로 報告되었다. 다른 하나는 消費函數가 어떤 期間 安定化되기에는 實質所得으로서 同一한 消費率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美國의 1917年, 1935年, 1941年의 家計調査 결과 所得이 全部 消費支出에 充當되고 貯蓄이 없는 所得계층은 1941年價格으로 나타내면 1917年은 約 80弗, 1935年은 1,500弗의 比率로 상승했는데 이것은 二間 消費函數 자체가 변동되고

⑦ W. S. Woytinsky, "Postwar Economic Perspectives," Social Security Bulletin, Dec. 1945. Feb. & March 1946.

⑧ Everett E. Hagen, "Forecasting Gross National Product and Employment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Studies in Income and Wealth, Vol. 10, 1947.

있다는 사실이다. 이후자의 사실 즉 消費函數가 安定性を 갖지 못했다는 것을 土臺로 하여 豫測을 했기 때문에 잘못이 일어 났다는 것이다. 따라서 Everett E. Hagen의 豫測은 너무 悲觀的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Modigliani나 Duesenberry는 長期的으로 平均消費率은 不變이나 30年代와 같이 所得變動이 격심할 때에는 消費函數가 循環的 또는 短期的으로 현저한 變動을 이끈다고 말했다. 결국 現在의 所得이 每年 過去의 最高所得을 更新하는 好況期에서는 貯蓄率이 대체로 長期的水準에 合致되어 安定된다. 그러나 반대로 過去의 最高所得을 下廻할 때에는 赤字가 이끈다. 즉 所得이 上昇할 경우와 下廻할 경우에는 貯蓄에 대한 관계는 非對照的이라는 것이다. 消費者는 所得이 2分の1로 低落되면 처음부터 2分の1水準에 있었던 사람 보다도 더 많은 消費를 하기 때문이다. 이같이 非對照性을 설명하기 위하여 消費函數를 改造하여 長期 또는 短期에도 들어 맞는 消費函數를 만든것이 Modigliani와 Duesenberry의 業績이다.

이 두 사람은 長期的要因과 循環的要因을 동시에 도입하여 오히려 前出에 중점을 두어 1950年の 貯蓄率을 11% 内外로 推定했다. 이것은 循環的인要因을 強調한 Jacob L. Mosak^⑨의 推定 15.8% 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케인즈」學派는 높은 貯蓄率을 推定함으로써 不況의 可能性을 強調했지만, Modigliani, Duesenberry는 반대로 낮은 貯蓄率을 豫想함으로써 극히 樂觀論을 주장했던 것이다.

二. Keynes 總體線型消費函數論의 Model

「케인즈」가 생각한 消費函數의 安定性에는 平均消費性向 $\frac{C}{Y}$ 가 일정 不變하다는 것을 가정하지는 않았다. 所得이 減少하게 되면 平均消費性向은 상승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 관계를 統計調査에서 보면 낮은 所得층에서 높은 所得층으로 옮겨짐에 따라 消費性向은 低下하고 貯蓄性向은 상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기에는 平均消費性向이 安定性을 가질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消費函數로서는 安定性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제 여기서 消費支出은 두갈래 部分으로 부터 된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所得變動에 따라 일정한 比例를 갖고 變動하는 部分이고 다른 하나는 所得增減에는 아무런 比例없이 일정하다는 部分등이다. 前者는 $C_I = \beta Y$, 後者は $C_B = \alpha$ 라고하면, 消費支出 總額은,

$$C = C_B + C_I = \alpha + \beta Y \cdots \cdots (1)$$

가 된다. 이 式에서 C_I 는 「誘發的消費」이다. 이를테면 所得의 변동에 의하여 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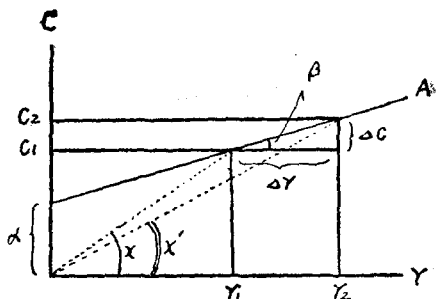
⑨ Jacob L. Mosak "Forecasting Postwar Demand: III," *Econometrica*, January, 1945.

發的으로 이러나는 消費部分이다. C_B 는 이른바「基礎的消費」이다. 이 消費는 所得이 전연 없더라도 支出하지 않을수 없는 不可分の 消費部分이다. 이 部分은 설령 所得이 없더라도 支出을 하지 않을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所得이 零이 되더라도 이 部分만은 절대적으로 消費支出되어야 하기 때문에 貯蓄한 돈을 빼내든지 다른 사람으로 부터 借用을 해야 된다는 額인 것이다. 이것을 어떤 의미로는 최저 限度의 消費額이라고도 할 수 있다.

線型消費函數가 安定性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1)式에서 β, α 가 一定하여야 할 것이다. 이 말은 (1)式的 消費函數 Model이 安定性을 가진다는 것은, 무엇보다 所得變動에도 불구하고 α 와 β 가 一定하다는 것을 뜻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Model에서는 平均消費性向($\frac{C}{Y}$)이 安定性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제 1도에서 알 수 있는 바와같이 이 消費증분 ΔC 와 所得증분 ΔY 와의 比率 즉 $\frac{\Delta C}{\Delta Y}$ 는 直線A의 기울기이며 $\tan\beta$ 로서 나타낸다. 따라서 限界消費性向 $\frac{\Delta C}{\Delta Y}$ 는 圖表上에서 살펴보면, $\frac{\Delta C}{\Delta Y} = \frac{C_2 - C_1}{Y_2 - Y_1}$ 라는 關係式이 된다. 여기서 $\frac{\Delta C}{\Delta Y} = \tan\beta$ 이기 때문에 β 의 絶對値는 一定하다. 동시에 α 의 값도 一定하게 되지 않을 수 없다.

제 1 도



〔線型消費函數 Model式 圖表〕

그러나 여기에 반하여 平均消費性向 $\frac{C}{Y}$ 는 相異하다. 즉 $\frac{C}{Y}$ 는 所得 Y_1 에서 所得 Y_2 로 증가함에 따라 消費 C_1 도 역시 C_2 로 증가 된다. 이럴때에 平均消費性向 $\frac{C_1}{Y_1}$ 는 $\frac{C_2}{Y_2}$ 로 이동되어 終結點線은 보다 그 기울기가 완만해 진다는 것을 알수 있다. 즉 이때는 $\tan x$ 에서 $\tan x'$ 로 변화된다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平均消費性向 $\frac{C}{Y}$ 는 一定하지 않다는 것이 증명되며 동시에 平均消費性向은 安定性을 갖지 못 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1)式的 양邊을 Y 로서 除하여 平均消費性向을 내게되면 다음과 같다.

$$\frac{C}{Y} = \beta + \frac{\alpha}{Y} \dots \dots \dots (2)$$

이상에 α 와 β 의 값이 一定하다고 했기 때문에 Y 가 증대됨에 따라 平均消費性向이 적어진다. 즉 제 1도에서 $\tan x > \tan x' > \tan x'' \dots \dots$ 된다는 關係를 알수 있다. 물론 이때 貯蓄性向은 상승하게 된다. 그러므로 (1)式的 線型消費函數의 安定性은 基礎消費(α)가 일정하다는 것과 限界消費性向($\tan\beta$)이 일정하다는 것만 條件

으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平均消費性向은 要件으로 하지 않는다.

消費函數 $C=\alpha+\beta Y$ 를 좀더 具體的으로 吟味해보기로 한다. 앞서 본바와 같이 $\alpha=C_B$ 는 基礎消費이다. 이것을 全部消費支出에서 빼면 誘發的消費 C_I 가 되는데 誘發的消費 C_I 는 즉,

$$C_I=C-C_B=\beta Y$$

가 된다. 그러기 때문에 限界消費性向 β 는 Y 의 增減과 그로 말미암아 誘發的으로 이어나는 C_I 의 增減과의 比率이다. 즉 $\frac{\Delta C_I}{\Delta Y}$ 인 것이다. 國民所得과 關係없이 이어나는 消費支出의 상승은 限界消費性向의 分子로서는 포함되지 않는다. C_B 의 상승은 오히려 乘數에 있어서 被乘數가 되고 有効需要가 증가되는 起動點이 된다. 이것은 이른바 「消費乘數」의 起點으로서 獨立的(autonomous)인 역할을 하게 된다. $C=\alpha+\beta Y$ 를 $Y=C+I$ 에 代入하면, 즉

$$Y=\alpha+\beta Y+I$$

$$Y(1-\beta)=\alpha+I$$

이식의 導函數를 求하여,

$$\therefore \frac{\Delta Y}{\Delta \alpha} = \frac{\nabla Y}{\Delta I} = \frac{1}{(1-\beta)} \quad (\text{註1})$$

가 되어 이 경우에는 消費乘數 $\frac{\Delta Y}{\Delta \alpha}$ 와 投資乘數 $\frac{\Delta Y}{\Delta I}$ 는 같은 値를 갖게 된다. 결국 β 는 이때에 確實히 限界消費性向의 형태를 취하며 平均消費性向은 아니다.

$$(\text{註 1}) \quad Y(1-\beta)=\alpha+I$$

$$Y=\frac{\alpha+I}{1-\beta}$$

Y 의 α 에 의한 導函數;

$$Y+\Delta Y=\frac{(\alpha+\Delta \alpha)+I}{1-\beta} \quad \Delta Y=\frac{\Delta \alpha}{1-\beta}$$

$$\therefore \frac{\Delta Y}{\Delta \alpha} = \frac{1}{1-\beta}$$

Y 의 I 에 의한 導函數;

$$Y+\Delta Y=\frac{\alpha+(I+\Delta I)}{1-\beta} \quad \Delta Y=\frac{\Delta I}{1-\beta}$$

$$\therefore \frac{\Delta Y}{\Delta I} = \frac{1}{1-\beta}$$

그런故로, $\frac{\Delta Y}{\Delta \alpha} = \frac{\Delta Y}{\Delta I} = \frac{1}{1-\beta}$ 이 된다

消費函數가 $C=\alpha+\beta Y$ 의 간단한 線型的 형태를 취할때에 그것은 統計的으로 立證되는 수가 많다. 이를테면 $\alpha=30$, $\beta=0.7$ 라고 하면 $C=30+0.7Y$ 가 된다. 간단한 假說例에 의하여 證明해 보기로 한다.

[제 1 表] $C=30+0.7Y$

年次	項目	Y	C	S	C/Y	S/Y
1		50	65	-15	1.30	-0.30
2		100	100	0	1.00	0.00
3		150	135	15	0.90	0.10
4		200	170	30	0.85	0.15

註: 篠原三代平外, 近代經濟學講義 — 國民所得의 理論 — 2卷, 51面에서 제 1表에 있어서 消費函數 $C=30+0.7Y$ 를 想定하기로 한다. 이경우에 所得은 50에서 200까지 증가한다고 가정한다. 消費支出은 어느 정도로 어떻게 증가하는가를 이 消費函數에 의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제 1年次에서는 $C=30+0.7 \times 50=65$ 가 되고 제 4年次에는 $C=30+0.7 \times 200=170$ 이 된다. 이결과 限界消費性向 (β)은 70%로서 不變한 것이다. 그러나 平均消費性向 ($\frac{C}{Y}$)은 130%에서 85%로 漸減한다.

이것에 대하여 貯蓄性向을 살펴보면 平均貯蓄性向 $=1 - \text{平均消費性向}$ 이다. 이것을 S/Y 로 하면 -30%에서 +15%로 증대하는 결과가 된다.

여기에 있어서 消費係數를 篠原氏는 0.7를 정했는데 去般(3月) 金正年氏는 우리나라의 消費係數를 서울市를 中心으로 하면 0.6730이 된다고 했다. 그리고 日本경제에서는 0.6이고 오늘날 가장 높은 나라가 0.9이며 보통 0.8이 平均이라고 한다. 그러나 美國에 있어서의 1929~40年間의 平均係數는 0.848³⁾이었다. 그러나 여기에 든 0.7이 世界各國의 β 值의 平均에 가깝다고 생각하여 이 0.7의 假說例의 値를 그대로 引用했다.

三. Duesenberry 相對所得假說의 Model

§ 1 相對所得概念의 導入

「케인즈」는 絕對所得假說에서 말하기를 個人이 하는 消費支出行爲는 他人과 관계없이 독자적인 것이라 가정했다. 즉 個人의 消費行爲는 他人의 消費行爲와는 아무런 相互의존관계없이 이루어지던 단지 그가 얻게 되는 絕對的인 所得水準에 만의존되어 결정된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Modigliani 라든지 Duesenberry 는 그렇게만 되는것이 아니라 他人과도 의존관계를 맺게 되는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하여 Modigliani factor 또는 Duesenberry factor 가 대두되어 相對所得의 假說이 展開되었다. 이들은 語하기를 「케

³⁾ J. L. Mosak, "Forecasting Postwar Demand: II," Econometrica, January, 1945.

인즈」의 骨子는 다음 두 가지로 要約된다고 지적했다.

(1) 各個人의 消費行爲는 他人의 消費行爲와는 아무 關係없을 뿐아니라, 거기에서는 全然 影響을 받지 않는다.

(2) 消費行爲는 時間的으로 可逆의이다. 즉 이를테면 所得이 증가 또는 減少하더라도, 所得水準이 同一할것 같으면 消費水準도 同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Modigliani 또는 Duesenberry 는 各個人의 消費行爲는 獨立의이 아니고 相互依存의이라고 批判했다.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는 微視的인 視角에서 個人單位로 생각하게 되면 個人은 他人과 關係없는것 같이 생각된다. 그러나 巨視的인 視角에서 보면 個人의 消費行爲는 社會的으로 相互依存關係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Duesenberry 가 말한바와 같이 個人은 그가 살고 있는 社會안에서는 接觸하는 다른 사람의 消費行爲에 부단히 자극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큰 影響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個人은 그가 얻을수 있는 絕對所得에 맞추어서 消費支出을 하는것이 아니라 他人과의 相對的所得比率에서 消費支出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關係를 函數式으로 표시하면 C_i, Y_i 를 i 個人의 當期的 消費와 所得이라 하고 Y_s 를 社會的平均所得이라 하면 i 個人의 消費函數는 다음과 같이 된다. 즉 $C_i = F\left(Y_i, \frac{Y_i}{Y_s}\right)$ 인 것이다. 이 式에서 i 個人의 消費支出 C_i 는 그自身的 所得 즉 Y_i 의 函數가 될뿐만 아니라, 社會的相對所得의 比率인 Y_i/Y_s 의 函數도 된다는 것이다.

Modigliani 는, 消費支出이 단지 一人當 實質可處分所得의 函數가 될뿐 아니라 過去의 최고所得의 函數도 된다는 것이다. 결국 消費者는 所得저탁에도 그것을 一時的인 것으로 생각하고 消費支出을 주리지 않으려고 든다는 것이다. 그 결과 過去에 높은 所得水準에 있었던 사람의 消費性向은 過去와 現在의 同一所得水準에 있었던 사람의 消費性向 보다 높은 것이다. 그리하여 결국 所得중에서 消費되는 比率 즉 消費率은 實質所得의 絕對的水準에 의존되는것이 아니라 過去의 최고所得의 變動率 즉 $\frac{Y_t - Y_0}{Y_t}$ 에 의존한다. 여기서 Y_t 는 現在의 所得, Y_0 는 過去의 최고所得을 의미한다.

Duesenberry 역시 Modigliani 와 同一한 變數 즉 $\frac{Y_t}{Y_0}$ 를 취하고 있다. 景氣上昇期에 있어서 過去의 所得 Y_0 는 現在의 所得 Y_t 와 더불어上昇한다. 그리하여 결국 Y_0 는 每年 更新되어 前年の 一人當 實質所得 Y_{t-1} 이 最高所得이 된다. 따라서 每年의 上昇率에 큰 變化가 없는한 $\frac{Y_t}{Y_0}$ 는 橫形狀態가 된다. 그러나 不況期나 所得減少期에는 Y_0 가 일정하기 때문에 $\frac{Y_t}{Y_0}$ 는 1以下가 되어 해마다 적어진다. 따라서 貯蓄率 $\frac{S_t}{Y_t}$ 역시 해마다 저하한다. 더구나 回復段階에 들어서도

過去의 최고水準에 달할때까지는 $\frac{Y_t}{Y_0}$ 가 해마다 증가경향에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以下이기 때문에 貯蓄率도 長期의水準이하의 數値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Duesenberry는 Modigliani의 函數와는 異形이나 景氣의 上昇期와 下降期에 있어서 消費數函의 不可逆性을 문제觀한데 대하여 本質的으로 같은 것이다.

§ 2. Demonstration Effect에 의한 消費의 社會性

최근에 이르러서 우리들은 消費支出이 當期の 所得의 絶對的水準에만 의존한다고 생각할수 없게 되었다. 이를테면 한 사람이 月額 10萬환의 所得을 얻는다고 가정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살고 있는 이웃이 모두 이 사람보다 貧者인 경우와 반대로 富者인 두 경우를 각각 比較해서 생각해 보자. 첫째 경우인 貧者끼리 사는 등리에 끼여 살게되면 10萬환의 不過 80%의 消費性向을 가졌던 것이 둘째 경우인 富者사이에 끼여 살게되면 90~100% 또는 그 以上の 消費性向을 갖게되는 결과가 된다. 그 理由는 간단하다. 즉 貧者끼리 살때와 달리 富者사이에서 살게되면 남의 눈때문에 체면유지라든지 남에 뒤지지 않겠다든지 또는 自尊心이 생겨서 자연 消費支出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가령 우리가 農村에서 살다가 同額所得으로써 서울에서 살게되면 더 많은 消費支出을 함은 사실이다. 물론 物價의 차이도 있겠지만 서울거리를 다닐때는 車를 타야하겠고, 週末에는 남들이 모두 映畫求景 가는데 나도 月末에 한번쯤 映畫를 구경해야 한다든지 또는 남들은 TV를 사는데 나도 하다못해 트랜지스트 하나를 가지고 싶다든지 하는 등등의 心理的刺戟을 받게 된다. 그뿐만 아니라 食生活一般에 걸쳐서도 한층 많은 消費支出을 하게 된다. 이런것은 Thorstein Bunde Veblen (1857~1929)의 “誘示의 消費(Conspicuous Consumption)”^①라는 말을 빌린 필요도 없이 우리가 日常 경험하고 있는 消費行爲(Consumption Behavior)인 것이다. 이런 消費行爲의 영향力은 확실히 社會性에서 오는 것이다. 이것은 비단 同質的社會에서 뿐만 아니라 異質的인 社會 이를테면 先進社會에서 오는 後進社會의 영향도 오늘날 큰 經濟的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상과 같은 社會的消費生活이 個人的 消費行爲를 지배하게 되는 영향力이 주는 效果를 Duesenberry는 Demonstration Effect라고 했다. 따라서 個人的 消費는 所得만을 變數로 잡을 것이 아니라 社會的 平均所得도 역시 變數로 잡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따라서 個人的 消費支出 나아가서는 社會的 消費行爲는 이와같이 消費의 示威에 의하여 다시 말하면 提模效果에 의하여 큰 影響을 받지 않을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以上이 Duesenberry에 의한 消費의 社會性을 뜻하는 것이다. 이것은 Keynes가 말한 絶對所得水準에 의한 消費支出을 否定하여 社會的 相對所得水準에 따라

① The Theory of the Leisure Class, 1899.

서 消費支出이 決定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다.

§ 3. Ratchet Effect에 의한 消費의 時間性

個人的 消費支出額은 단지 現行所得에만 의존되는 것이 아니라 過去의 높은 所得에도 의존된다는 것을 앞서 말했다. 다시 말하면 現行所得이 現行消費의 變數가 될 뿐 아니라 過去의 高額所得도 동시에 現行消費의 變數가 된다는 것이다. 이런 관계는 消費支出에 있어서 人間의 消費情性이 作用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證明하고 있다. 즉 過去에 실현된 消費의 慣習持續(habit persistence)인 것이다. 따라서 消費(貯蓄)과 所得과의 관계는 時間的으로 不可逆的(irreversibility)인 것을 나타내고 있다. Duesenberry는 貯蓄과 所得과의 관계도 短期的인 景氣循環過程의 相異한 점에서는 각각 다르지만은 長期的循環過程에서는 貯蓄(消費)比率의 恒常性이 나타난다고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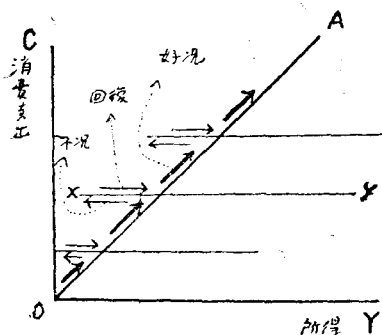
그의 函數구성의 要點은 消費가 所得의 函數가 될 뿐 아니라 過去의 최고所得의 函數도 되는 것이다. Y_t 를 現行所得, Y_0 를 過去의 최고所得이라면 平均貯蓄性向은,

$$\frac{S}{Y} = f\left(\frac{Y_t}{Y_0}\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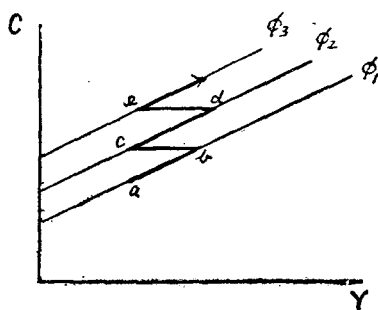
가 된다. 이 式에서는 過去의 최고所得과 現行所得과의 時間的相對比率 $\frac{Y_t}{Y_0}$ 가 上昇하게 되면 貯蓄率 $\frac{S}{Y}$ 는 上昇하고 동시에 消費率 $\frac{C}{Y}$ 는 하락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相對比率가 하락하게 되면 貯蓄率은 하락하게 되고 消費率 즉 消費性向은 상승한다.

Modigliani와 Duesenberry는 現行所得 Y_t 가 過去의 최고所得 Y_0 를 넘어서서 上昇할 경우와 반대로 下落할 경우는 貯蓄 혹은 消費는 不可逆적으로 또는 非對稱的으로 된다고 했다. 이상 두 가지 경우를 제 I도와 제 II도에서 살펴 보기로 하자.

제 I 도



제 II 도



[消費行爲의 非對稱性]

먼저 제 I 도에서 보면 景氣가 後退하여 所得이 하락하게 되면 x, y 線을 따라 消費도 감소된다. 그러나 景氣가 回復段階에 드러가게 되면 이번에는 x, y 線을 따라서 消費 역시 상승한다. 그런데 한번 過去의 최고所得선을 넘으면 이번에는 原點과 통하는 OA 線을 따라서 消費支出이 증가된다. 景氣後退와 回復期의 消費函數의 기울기는 好況期の 消費函數의 기울기 보다 완만한 것이다. 즉 好況期에는 기울기가 急角度로서 상승하지마는 不況期에는 所得저하에 따라서 消費도 저하하지마는 다시 回復期를 맞이해서 上昇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長期的으로 보면 결국 그 形이 톱이꼴(鋸齒狀)과 같이 된다는 것이다. 이 꼴을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하여 제 II 도를 살펴 보기로 하자. 즉 a 점에서 b 점까지의 所得증가에는 消費 역시 ϕ_1 線을 따라 증가한다. 그런데 b 점에서 所得이 하락하게 되면 消費는 b 점에서 ϕ_2 線상의 c 점을 이동하게 된다. 다시 好景氣가 되면 ϕ_2 線을 따라서 d 점까지 상승하게 된다. 여기서 또 不況이 되면 消費는 d 점에서 e 점으로 이동하여 다시 好景氣 즉 所得상승에 따라서 ϕ_3 線을 따라 상승한다는 결과가 된다. 이렇게 하여 消費가 하락되는 것을 억제하여 다시 상승되고 해서 마치 그 형이 톱이(ratchet)와 같다고 해서 Duesenberry 는 이런 效果를 Ratchet Effect 라고 했던 것이다.

이것은 所得變動에 대하여 消費適應의 「遲滯」가 있기 때문에 한번 이룩된 消費水準은 不況期가 되어 所得이 下落할 때에는 一時 하락은 하나 다시 所得上昇에 따라서 상승하는 것이다. 즉 消費의 慣習持續이 所得上昇과는 逆行되지 않고 다시 時間的으로 不可逆的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消費習性이 時間性에 따라 지속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면 결국 長期的으로 보아서 톱이狀은 되지만 전체적으로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Duesenberry 의 제2의 所得에 관한 相對개념의 도입이라 할수 있다. 즉 時間上으로 본 相對所得의 假說인 것이다. 우리의 消費習慣의 持續性을 생각할때 확실히 Keynes 의 當期の 所得消費관계는 Duesenberry 의 時間的相對所得의 假說로써 代替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消費支出은 비단 所得만의 函數가 아니라 第2次大戰後에는 오히려 流動資産의 效果에 의하여 서로 달라 졌던 것이다. 따라서 J. Tobin 같은 사람은 流動資産의 假說을 제기 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四. 綜合 Model 의 檢討

§ 1. Tobin 의 流動資産假說

相對所得假說이 「제인즈」의 絕對所得假說을 否定한데 대하여 流動資産假說(liquid assets hypothesis)은 오히려 絕對所得假說을 肯定하는 입장에서 거기다 流動資産의 效果를 追加함으로써 문제를 해결 할려고 하고 있다.

流動資産의 效果를 처음으로 제창한 사람은 W. S. Woytinsky¹²이다. 그는 第2次大戰後의 消費函數論爭에 있어서 특히 이번 期는 第1次大戰後에 比하여 消費者의 負債가 僅少하다는 점 더구나 戰時中 蓄積된 流動資産등이 供給을 超過하기 때문에 Deflation 보다는 Inflation 이 필연적이라고 했다. 더구나 流動資産이 消費者의 貯蓄 消費에 관한 態度決定에 큰 影響을 주게 된다고 주장하여 資産說을 제기시켜서 理論을 展開했던 것이다.

그러나 流動資産을 구체적으로 消費의 變數(獨立變數)로서 취급하여 消費函數에 도입한 사람은 James Tobin¹³이다. 그는 Duesenberry의 相對所得假說에 대하여 絕對所得假說이 보다 妥當性이 있다고 主張하여 資産效果를 도입하여 이를 發展시켰던 것이다.

1929~1940 年間の 所得과 消費와의 關係를 戰後에 까지 延長하여 實績 보다 過少한 消費支出을 推定하게 되었다. 이것은 戰時中에 蓄積된 巨額의 流動資産이 消費를 조성했기 때문이라 한다.

流動資産假說은 白人과 黑人の 貯蓄性向의 차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즉 同一所得水準에 있던 白人과 黑人을 비교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黑人の 貯蓄性向이 높은 것이다. 그理由는 黑人과 白人의 家計를 비교하건데 黑字家計로서는 같은 所得水準으로 같은 貯蓄性向을 갖는다. 그러나 赤字家計로서는 黑人은 保有流動資産이 적기 때문에 너무 많은 赤字를 낼수는 없게 된다. 그러나 白人은 保有流動資産이 많기 때문에 마음껏 赤字에 호소할 수가 있다고 했다. 따라서 赤字家計는 白人家計가 相對的으로 보다 많은 赤字支出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赤字家計와 黑字家計를 합한 結果를 총체적으로 보면 黑人이 同一한 所得水準으로서 貯蓄性向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여기서 赤字인가 黑字인가 하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빚(借金)을 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용이하게 現金化할 수 있는 預金, 株式, 社債등의 流動資産을 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같은 流動資産도 역시 所得과 같이 消費支出의 變數로 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消費를 左右시키는 것이 비단 所得뿐만 아니라 保有流動資産도 된다는 結論이다. 특히 資産說에서는 이후자의 비중을 더 크게 보는데 있다. 이 流動資産假說은 J. Tobin에 의하여 展開되고, 그 후 L. R. Klein에 의하여서는 한층 深化되고 있다.

資産說과 더불어 특히 우리의 注目을 끌게되는 것은 우리가 얻게되는 變함없는

¹² W. S. Woytinsky, "Relationship between Consumer's Expenditures, Savings and Disposable Income," Review of Economic Statistics, February, 1946.

¹³ James Tobins, "Relative Income, Absolute Income, and Saving," in Money Trade and Economic Growth, in honor of John Henry Williams, 1951.

恒常所得만이 平均消費性向을 變動시키게 되는 變數가 된다고 하는 假說이다. 다음에 이 假說에 관하여 살펴 보기로 하겠다.

§ 2. Friedman의 恒常所得假說

消費를 變動시키는 主된 要因이 所得이라는 것은 누구나 肯定하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이 所得을 두고 보더라도 거기에는 고정적인 恒常所得과 수시로 변하는 變動所得이 있다. 이 恒常所得과 變動所得이 消費에 미치는 效果를 理論적으로 展開시킨 사람이 Milton Friedman¹⁴이다.

그는 所得을 현실적으로 測定할 수 있는 이른바 實際의所得(measured income)을 恒常所得(permanent income)과 變動所得(transitory income)의 둘로 개념구분했다. 여기서 恒常所得이라면 변함없이 해마다 일정하게 들어오는 所得을 의미하며 變動所得은 생각치도 않던 一時的 또는 臨時的인 所得을 의미한다. 이를테면 月給을 두고 말하더라도 고정된 每月的 月給은 전자에 해당할 것이며 수시로 받을 수 있는 償與金(bonus) 같은 것은 후자에 속할 것이다.

消費率 $\frac{C}{Y}$ 은 總所得 Y 와 恒常所得 Y_P 와의 比率 $\frac{Y_P}{Y}$ 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결국 消費函數關係를 따지고 보면 總所得인데 거기에는 恒常所得과 變動所得의 개념이 포함되고 있다. 따라서 所得假說에는 이 두 개념이 內包되어 있는 것이다.

우리가 日常生活에서 쓰이는 恒常所得에서는 生活費로만 支出되지 않는 變動所得은 이와는 달리 耐久消費財 즉 TV 라든지 라디오등을 구입하는데 支出된다. 그러므로 恒常所得과 變動所得은 그 消費支出되는 性格도 상이하지 않는 消費와 貯蓄으로 配分되는 比率관계도 역시 달라지는 것이다. 恒常所得과 消費를 Y_P, C_P 라 하고 變動所得과 消費를 Y_T, C_T 로 하면 다음과 같은 式으로 된다.

$$Y = Y_P + Y_T \quad Y_P = Y - Y_T \dots\dots\dots(1)$$

$$C = C_P + C_T \quad C_P = C - C_T \dots\dots\dots(2)$$

가 된다. 그런데 Friedman의 假說에서 문제되는 것은 恒常所得과 恒常消費에는 다음과 같은 關係式이 성립한다는 것이다. 즉

$$C_P = k Y_P \dots\dots\dots(3)$$

여기에서는 消費, 貯蓄의 消費者選好에 영향을 미치는 利率, 資産등을 捨象한다. 즉 다른 條件이 변하지 않는다면 C_P 는 Y_P 의 變化에 따라서 변한다는 것이다. 換言하면 $\frac{C_P}{Y_P}$ 는 k 에 同等하다. 여기서 k 는 恒常所得과 恒常消費와의 變動關係를 뜻한다. (3)式에 (1), (2)式을 代入하면,

$$C - C_T = k(Y - Y_T)$$

¹⁴ Milton Friedman, A Theory of the Consumption Function, 1957.

$$C = \kappa(Y - Y_T) + C_T \dots\dots\dots(4)$$

兩邊을 Y 로서 除하면,

$$\frac{C}{Y} = \kappa \left(1 - \frac{Y_T}{Y}\right) + \frac{C_T}{Y} = \kappa \left(\frac{Y_P}{Y}\right) + \frac{C_T}{Y} \dots\dots\dots(5)$$

가 된다. 그의 理論을 알기쉽게 하기 위하여 變動消費 C_T 를 무시하고, Y_T 의 增減이 消費性向에 미치는 效果만을 생각한다. 즉,

$$\frac{C}{Y} = \kappa \left(\frac{Y - Y_T}{Y}\right) = \kappa \left(\frac{Y_P}{Y}\right) \dots\dots\dots(6)$$

이 式은 重要的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가령 κ 가 일정하다 하더라도 實際所得 가운데서 차지하는 恒常所得의 증감에 따라 平均消費性向도 증감한다. 다시 말하면 實際所得 Y 가운데서 變動所得 Y_T 의 比率이 증가하면 消費性向 $\frac{C}{Y}$ 는 저하하고 貯蓄性向 $\frac{S}{Y}$ 은 상승한다. 變動所得으로 貯蓄率이 높은 것은 우리의 日常經驗에서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貯蓄率이 높은 變動所得의 比重이 클것 같으면 尙全體的貯蓄率은 상승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好況期에는 不況期 보다 高所得층은 低所得층 보다 變動所得이 크기 때문에 역시 貯蓄率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관계가 恒常所得과 變動所得이 주는 效果라 할 수 있다.

家計調査에 있어서 消費函數가 所得증가에 따라서 消費性向이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그 理由는 所得계층이 높아짐에 따라 實際所得 가운데서 차지하는 變動所得 Y_T 의 比重이 증가하고 동시에 $\frac{Y_P}{Y}$ 가 減少하기 때문이다. (6)式의 경우 $\frac{C}{Y}$ 가 減少하는 것은 명확하다. 同一하게 所得계층이 낮아짐에 따라 變動所得 Y_T 의 比重이 저하하고 $\frac{Y_P}{Y}$ 가 증가하기 때문에 消費性向 $\frac{C}{Y}$ 도 상승한다.

結 論 消費函數 Model 의 展望

以上에서 論한 것이 오늘날 Keynes 以後 대두된 消費函數 Model 의 개요이다. 消費函數는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第二次大戰後 美國經濟를 豫測하는데 있어서 하나의 實證의 무기였다. 따라서 이것에 관한 白可曰否의 論爭은 戰後에 있어서 「消費函數論爭」이라는 固有名詞까지 만들게 되었다는 動機이다. 이만큼 消費函數는 오늘날 現代經濟學上 中心問題를 含蓄하고 있을 뿐 아니라 經濟學者의 關心의 焦點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消費가 生産을 制約하게되는 資本主義經濟의 運命的時點에 서서 消費의 올바른 分析이 없이는 經濟의 複雜한 mechanism 을 解剖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未來의 資本主義發展에 있어서 하나의 試金石을 다룰 수도 없을 것이다. 加速度的인 商品生産에 對물하는 資本主義經濟의 고민은 確實히 消費에 있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資本主義經濟의 運命決定은 무엇보다 이 消費문제를 올바르게 分析하는데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비단 消費函數論爭이 第二次大戰의 유물로서만 돌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오히려 앞으로 새로운 視角에서 分析해야 할 對象으로 되지 않을 수 없다.

「케인즈」의 總體模型의 문제제기에서 시작하여 第二次大戰後의 經濟豫測이 失敗됨으로써 새로운 角度에서 一連의 論爭 가운데 나타난 것이 Modigliani 또는 Duesenberry의 相對所得개념의 문제였다. 이것은 확실히 Keynes로 부터의 하나의 커다란 前進이었다. 그러나 經濟行爲에 對한 資產保有의 영향이 檢討되어 個個의 消費者行爲 뿐만 아니라 消費, 貯蓄의 長期的인 趨勢마저도 여기에 의하여 有效하게 설명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J. Tobin 이나 Klein 등에 의하여 이른바「資產說」이 實質上 代位케 되었던 것이다. 더구나 Klein 같은 사람은 經濟行爲를 설명하기 위한 變數로서 經濟的인 範疇의 變數 뿐만 아니라 社會學的, 人種學的 또는 人口學的인 變數 까지 Model 가운데 포함시키기를 주장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Model의 擴張 해석이 최초의 出發點인 Keynes의 立場과는 상당한 거리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美國의 Post-Keynesian 들은 一連의 論爭過程에서 최근의 Friedman의 業績까지 포함해서 一貫된 흐름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새로운 視角에서 消費函數문제를 다룬다 할지라도 그 理論的動脈은 一貫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다만 從來보다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은 보다 統計的檢證이 정밀하여 지게 될 것이다. 이것은 비단 消費函數 그 자체뿐 아니라 現代經濟學의 一般的 하나의 基本特徵으로 되고 있기 때문이다. 종래의 純粹經濟學이 하나의 規範的(normative)인 理論이었다는데 대하여 오늘날의 理論이 그야말로 實證的(positive)인 經濟理論으로서 意義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檢討한 여러가지 理論Model의 설정이 그것이 어디까지나 복잡한 社會의 人間行爲에 관한 문제를 다루게 되는 限 그것은 經濟的變數의 諸變數에 의한 假說設定이 여러가지로 문제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점을 생각할때 우리는 모르지 기 Klein 등이 주장한 多元論的인 結論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런 문제는 우리 經濟學徒의 앞으로의 研究課題로서 남게 될 것이다. (끝)

彙 報

— 西紀1961年12月29日~62年8月31日 —

韓國經濟學會

〈第十回 定期總會〉

1961年 12月 29日 大韓商工會議所 會議室에서 全國各大學에 招치는 會員 70餘名이 參席한 가운데 開會되었다. 이날 崔虎鎮會長으로 부터 本學會가 (1) 文教部布告 第六號에 의하여 再登錄되었다는 것과 (2) 國際經濟學會(IEA)에의 加入申請書類를 提出하였다는 經過報告와 아울러 宋鍾克監事の 決算報告가 있었다.

특히 이날의 重要한 討議案件으로는

1. 서울特別市 教育委員會의 指示에 依據한 會則中 「任員」條項의 改正
2. 會員의 嚴正確定을 위한 會則中 「會員」條項의 改正
3. 財源確保를 위한 會費의 再策定 등이었으며 이에 對하여 다음과 같이 決議하였다.

1. 任員의 就(解)任에 關한 會則의 新設은 서울特別市教育委가 말하는 「社會團體」라는 範圍에 本學會

가 附屬된다고 確定되었을 경우에 限하여 다음과 같이 會則中 第5條를 改正한다.

第5條 任員의 第1項을 「本會에 任員으로 會長 1名, 諮議員 11名, 監事 3名을 두고 職員으로 總務 1名幹事 若干名을 둔다」로 改正하고第2項에 「但 任員의 就(解)任은 總會의 決議를 거쳐 서울特別市長의 許可를 얻어就(解)任한다」를 新設追加한다.

2. 會則中 第4條 第1項을 「本會의 會員은 다음 各項의 1에 該當한 者로서 所定の 會費를 納付한 者라야 한다」로 改正한다.
3. 會費는 助教授級以上을 年 4,000 圓 (新券 400圓)으로 하고 그以下를 年 2,000圓 (新券 200圓)으로 하되 會費의 徵收는 共히 年 2回(前期·後期)로 한다. 따라서 本總會에서 納入된 會費는 1962年度 前期分 會費로 計上한다.

위와 같은 決議에 이어서 會長으로 부터 日本天理大學의 「朝鮮學會」主權

인 第12次 「韓國學術研究大會」(同年 10月 23日 日本奈良에서 開催)에의 參席報告가 있었으며 (豫定된 蘇眞德教授의 APO 國際會議參席報告는 本人의 事情으로 없었음) 會員證과 會誌 第9輯의 配付로 閉會하였다.

<第二回 會員研究發表會>

第10回 定期總會와 더불어 韓國農業經濟學會와 共同主催로 大韓商議 會議室에서 두번째의 研究發表및 討論이 盛大히 있었다. 이날의 發表者및 題目은 다음과 같다.

宋鍾克 (中央大學校 經商大學 教授)

韓國의 人口問題

沈永根 (서울大學校 農科大學 專任 講師)

食糧經濟의 問題點

朴基嫻 (延世大學校 商經大學 副教授) 韓國農業의 機械化와 近代化에 對하여

李昌烈 (高麗大學校 政經大學 教授) 韓國經濟의 沈滯와 인프레손

<第一回 役員會>

1962年 1月 6日 大韓商議 會議室에서 會長으로 부터 會誌 第9輯의 國內外 發送등 經過報告가 있는 다음 아래와 같은 諸般事項의 決議를 보았다.

1. 會員의 資格에 있어서 調查研究機關에 從事하는 者中 5年以上을 在職한 者를 助教授級以上으로 認定하기로 한다.

2. 會費의 納入은 振替口座와 會員

研究發表會를 利用하기로 한다.

3. 1962年度 年間業務計劃을 아래와 같이 定한다.

i) 會員研究發表會를 年 2回로 하되 第3回 發表會는 釜山에서 4월에 第4回는 서울에서 11月中으로 함.

ii) 第5回全國大學院 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를 서울中央放送局과 共同主催로 서울에서 11月中으로 實施함

iii) 會誌를 年 2回 發刊하되 第10輯은 創立 第10週年 特輯號(200面 内外)로 6월에 그리고 第11輯은 12월에 發刊함. 但 그때 그때 研究發表論文 및 그에 對한 質疑應答의 要旨를 掲載하기로함

iii) 11月中의 行事는 다음의 順序대로 하고 連日續行하기로 함.

第1日 第5回 全國大學院 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

第2日 第4回 會員研究發表會

第3日 第11回 定期總會

<學術報告講演會에 後援>

3月 28일부터 4日間에 있었던 東亞日報社 主催의 第2回 學術報告講演會에 本學會가 後援하였다. 이 講演會에 招聘된 發表者는 在日新韓學術研究會員들로서 報告된 演題는 아래와 같다.

沈晚燮 (名古屋大學大學院 博士課程) 金融構造의 變化와 貨幣需要의 分析, 外

金正年 (慶應義塾大學大學院 博士課程)

우리나라 家計消費構造에 關한 計量的分析, 外

崔 相 (農博, 東京大學 水產學研究室)

海參의 生物學, 外

河德模 (東京農業大學 大學院 博士課程)

酵母의 生活環에 關하여, 外

〈國際經濟學會(IEA)加入件 巴里에서 8월에 執行委員會上程 審議豫定〉

4月 28日 大韓商議會談室에서 開催된 第2回 役員會에서 2月 7日字로 國際經濟學會로 부터 今年 8月에 本學會의 加入件을 執行委員會에 上程審議豫定이라는 通告를 接受하였다는 會長의 報告가 있었다. 한편 이날 決議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1月 19日字로 서울特別市教育委員로 부터 서교 第738號(內容要旨: 任員의 就(解)任에 關한 서울特別市教育監의 管轄權이 從前대로 文教部長官에 轉任됨에 따라 定款變更認可申請書를 返戻함)을 接受함과 더불어 이에 關한 1961年度 第10回 定期總會의 會則改正을 無效로 함.

2. 第3回 會員研究發表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기로 함.

日時, 1962年 5月 13日

場所, 東亞大學校 講堂 (釜山)

〈釜山에서 第3回 會員研究發表會〉

5月 13日 本學會가 創立된지 10年만에 처음으로 本學會의 胎動地였던 釜山所在의 東亞大學校 講堂에서 崔虎鎭會長, 黃炳峻評議員 및 白桓基 總務의 下釜를 비롯하여 大邱, 釜山등지로 부터 30餘名の 會員과 100餘名の 傍聽者가 參席한 가운데 세번째의 研究發表 및 討論이 盛大히 있었다. 특히 이번의 發表會는 東亞大學校 總長을 비롯하여 同校 在職會員 및 同校 經濟學會의 物心兩面에 걸친 積極적인 協調下에 開催되었으며 東亞大의 林奎祥 教授의 司會로 進行된 當日의 發表者 및 論題는 아래와 같다.

金瑞鳳 (東亞大學校 法經大學 副教授)

適正雇傭과 能力雇傭의 決定原則
金鏞洪 (大邱大學 助教授)

配合・壓縮作業에 있어서의 動作時間研究

都禹鉉 (東亞大學校 法經大學 講師)

레온티에프體系의 生産函數 및 그 의 動學體系에 關한 小考

金三守 (淑明女子大學校 政經大學 教授)

契의 團體概念에 關한 史的考察
李政在 (漢陽大學校 政經大學 副教授)

社會經濟를 中心으로한 古典學派의 動態理論序說

〈第三回 役員會〉

7月7日 中央公報館 文化싸롱에서 開催되었다. 이날 會長으로 부터 第三回 會員研究發表會에 대한 經過報告가 있는 다음 아래와 같은 諸般의 決議가 있었다.

1. 第四回 會員研究發表會를 韓國農業經濟學會와 共同主催로 다음과 같이 開催하기로 함.

日時: 9月 乃至 10月中旬頃

處所: 光州 (全南)

2. 第五回 全國大學院學生經濟學研究發表大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하기로 함.

日時: 10月初

處所: 서울

題目: 經濟開發五個年計劃의 完遂를 위한

- A. 內資調達의 方案
- B. 株式市場과 產業資本
- C. 農業의 構造改善
- D. 均衡發展이나 不均衡發展이나
- E. 經濟發展과 經營 Innovation
- F. Export Marketing과 保

稅加工

3. 7月17일에 學術院賞을 受賞하게 될 崔虎鎭會長에게 記念品을 贈呈하기로 함

〈崔虎鎭 博士 · 1962年度 學術院賞을 受賞〉

6月30일에 있었던 學術院會議에서의 第7回 (1962年度) 學術院賞의 受賞者決定에 따라 崔虎鎭博士가 7月17日 서울大 講堂에서 學界의 많은 人士가 參席한 가운데 功勞賞을 受賞하였다. 이날 本學會側에서는 役員會의 決議에 따라 記念品 (花盆)의 贈呈이 있었다.

이번 崔虎鎭博士의 受賞은 社會科學系에서 두번째이고 經濟學界로는 첫번째 이었다.

〈亞細亞財團에서 本學會에 研究費 支給〉

7月31日 亞細亞財團(The Asia Foundation)에서 本學會의 主管下에 「韓國에 있어서의 資金決定의 問題」를 本學會會員인 卓熙俊 · 李政在 兩教授가 6個月間 擔當하기로 하고 “원”貨로 425,500원의 研究費를 支給하였다.

會員名單

1962. 8. 2現在

※下記 名單안에 記載되지 않거나 正確하지 못 한것. 혹은 變動된 事項이 있는 會員께서는 반드시 學會本部로 連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助教授級以上——

(가나다順)

姓 名	住 所	勤務處	職位	專攻分野
姜 五 佳	서울特別市永登浦區黑石洞 38—42	經濟企劃院 統計局	局 長	統 計 學
高 承 濟	“ 鍾路區清雲洞51 —1	콜럼비아 大學校 經濟問題研 究 所	客 員 教 授	韓國經濟史
權 赫 紹	大邱市鳳德洞512—8	大 邱 大	教 授 (學長)	理論經濟學
金 奎 三	서울特別市鍾路區新門路二 街108—16	延 世 大	教 授	經 營 學
金 基 澤	大邱市德山洞134	大 邱 大	教 授	理論經濟學
金 大 濬	서울特別市西大門區창천동 12—5 (9統5班)	延 世 大	助教授	保 險 論
金 文 植	“ 永登浦區鷺梁津 洞215A—1	서 울 大	副教授	農業經濟學
金 炳 台	“ 永登浦區黑石洞 239—15	韓 國 經 濟 問題研究會		
金 福 守	馬山市中央洞一街2—3	馬 山 大	副教授	
金 三 守	서울特別市鍾路區惠化洞 180	淑明女大	教 授	韓國經濟史
金 相 謙	“ 西大門區新村洞 66—15	延 世 大	“	經 濟 政 策
金 瑞 鳳	釜山市西區東大新洞三街 254	東 亞 大	副教授	理論經濟學
金 英 浩	서울特別市龍山區梨泰院洞 208—12	淑明女大	副教授	財 政 學
金 玉 根	釜山市釜山鎮區大淵洞A 50	釜 山 水 大	助教授	西洋經濟史
金 鏞 淇	大邱市大鳳洞405—5	大 邱 大	“	經 營 學
金 珞 培	釜山市釜山鎮區釜岩洞145	東 亞 大	“	經 營 學
金 潤 煥	서울特別市城北區仁壽洞 633	高 麗 大	“	理論經濟學
金 仁 玉	“ 龍山區桃園洞 8—6	中 央 大	副教授	工業經濟學

金 在 英	서울特別市麻浦區鹽田洞山8 (17番5號)	國防大學院	研 究 教 授	經 濟 政 策
金 俊 輔	“ 坡東區新堂洞393—22	全 南 大	總 長	理論經濟學
金 次 龍	釜山市西區東大新洞二街25	東 亞 大	助教授	財 政 學
金 孝 祿	서울特別市西大門區北阿峴洞1—21	高 麗 大	教 授	經 營 學
南 應 貽		國 民 大	助教授	理論經濟學
盧 志 彥		漢 陽 大	講 師	經 營 學
牟 喜 春		全 南 大	副教授	
文 炳 錄	서울特別市永登浦區黑石洞213—3	中 央 大	“	韓國經濟史
文 聖 模	“ 東大門區清涼里洞205—13	最 高 會 議	專 門 委 員	計量經濟學
文 定 昌	“ 龍山區葛月洞7—97			農業經濟學
閔 俊 植	光州市芝山洞445	全 南 大	助教授	理論經濟學
朴 奎 祥	釜山市中區鹽州洞636	東 亞 大	副教授	人 口 論
朴 根 昌	서울特別市城北區貞陵洞10—11	中 央 大 學	學 長	農業經濟學
朴 基 燮	“ 西大門區延禧洞344—10	延 世 大	副教授	“
朴 東 昂	“ 鍾路區體府洞72	서 울 大	“	“
朴 東 浩	“ 麻浦區西橋洞86—3	國 際 大	“	理論經濟學
朴 守 鉉	大邱市大鳳洞132	大 邱 大	教 授	經 濟 政 策
朴 應 緒		產 銀 調 查 部	調 查 役	
朴 應 淳		全 南 大	教 授	
白 永 勳	서울特別市龍山區厚岩洞396—1	中 央 大	副教授	工 業 政 策
白 昌 錫	“ 龍山區孝昌洞201	崇 實 大	教 授	社 會 政 策
白 桓 基	“ 城北區貞陵洞436—2	漢 陽 大	講 師	理論經濟學
卞 熙 塔	“ 麻浦區合井洞308—14	成 大	名 教	經 濟 學 史
蘇 眞 德	“ 永登浦區黑石洞山86	서 울 大	教 授	經 營 學
宋 鍾 克	“ 永登浦區黑石洞10—11	中 央 大	“	經 濟 地 理
宋 種 福	“ 鍾路區桂洞48—11	建 國 大	助教授	協同組合論

宋 呔 永	永登浦區黑石洞山10—28	延 世 大	教 授	會 計 學
安 台 鎬	大邱市鳳德洞973	大 邱 大	市 場 論	
吳 昌 俊		釜 山 延 大	助教授	
俞 鵬 老	서울特別市城北區安岩洞104—152	延 世 大	副教授	商 學
俞 仁 浩	西大門區葛峴洞136—16	東 國 大	副教授	經 濟 政 策
尹 根 鎬	大邱市大鳳洞168—11	大 邱 大	副教授	會 計 學
李 官 玉		弘 益 大	理 論 經 濟 學	
李 文 垣	서울特別市城北區貞陵洞376—4	淑 明 女 大	教 授	
李 承 潤	西大門區滄川洞79—37	서 울 大	助教授	理 論 經 濟 學
李 永 烈	大邱市大明洞259-1	韓國社會事大業	副教授	經 營 學
李 潤 根	鳳德洞939	青 丘 大	理 論 經 濟 學	
李 政 在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洞256—1	漢 陽 大		
李 鍾 和		서울農業大	助教授	經 濟 政 策
李 燦 雨	大邱市大鳳洞408—8	青 丘 大	副教授	
李 昌 烈	서울特別市鍾路區嘉會洞56	高 麗 大	教 授	理 論 經 濟 學
李 弼 圭	光州市龍鳳洞641	全 南 大	農 業 經 濟 學	
林 元 澤	서울特別市鍾路區明倫洞三街91—2	成 均 館 大	副教授	理 論 經 濟 學
任 翊 淳	乙支路三街8	延 世 大	助教授	經 營 學
張 基 周	大邱市西也洞147	韓國社會大業		
張 謨 鎬	釜山市西區東大新洞一街153	釜 山 水 大		
張 源 宗	서울特別市城北區敦岩洞509—34		理 論 經 濟 學	
鄭 鍾 鎭	西大門區창천동厚生住宅156號	延 世 大	經 營 學	
鄭 學 臣	光州市鶴洞47—4	全 南 大	副教授	
丁 海 東	서울特別市城北區敦岩洞503—6	中 央 大	副教授	理 論 經 濟 學
曹 基 發	光州市楊林洞161	全 南 大	助教授	經 濟 史
崔 日 煥	서울特別市永登浦區黑石洞79—98	同 德 女 大	講 師	經 濟 學 史

崔 朱 喆	•	城北區敦岩洞 262—31	農 林 部 局 農 地 局	局 長	農業經濟學
崔 虎 鎮	•	城東區新堂洞 62—41	延 世 大	教 授	韓國經濟史
崔 晄 烈			慶 北 大	助教授	理論經濟學
卓 熙 俊	서울特別市永登浦區黑石洞 山15—12		시 울 大	講 師	勞 動 法
韓 完 洙	•	城北區彌阿洞山 549	產銀調查部	調查役	國民所得論
黃 炳 峻	•	城北區敦岩洞山 65—13	시 울 大	副教授	工業經濟學

——助教授級以下——

姓 名	住 所	勤務處	職位	專攻分野
姜 一 秀	光州市湖南洞	全 南 大	講 師	會 計 學
高 炳 佑	서울特別市城北區上月谷洞 24—16	漢 陽 大	講 師	經 營 學
權 斗 榮	• 城北區城北洞 114—3	高 亞 大 細 亞 所 問題研究所	助 手	
權 寧 河	• 城北區貞陵洞 464—14	經濟企劃院		協同組合論
金 鏡 泰	釜山市西區西大新洞三街 486	東亞大學院	碩 士 程 課 任 師	國際經濟學
金 圭 元		釜 山 水 大	專 講 講 師	
金 斗 漢		高 亞 大 細 亞 所 問題研究所	講 師	
金 柄 夏	• 永登浦區上道洞 58—228	前, 中央大	專 講	韓國經濟史
金 寶 煥	• 永登浦區黑石洞 215	成 均 館 大	講 師	國際貿易論
金 成 斗	• 西大門區礪強洞 141—9	漢 陽 大	•	
金 舜 坤	• 城北區城北洞 256—4	建 國 大	•	西洋經濟史
金 應 貨				商 學
金 仁 台	釜山市東萊區福泉洞339—1	釜 山 水 大	專 講	
金 日 坤	• 釜山鎮區草邑洞547	釜 山 大	•	理論經濟學

金 濟 蓼		全 南 大	專 講	經 濟 學 史
金 峻 憲	大邱市大明洞1999	青 丘 大	碩 士 程	一 般 經 濟 史
金 且 明	桂山洞一街92	大邱大學院	博 士 程	經 濟 政 策
斗 卬 午		延世大學院	講 師	數 理 經 濟 學
都 禹 鉉	釜山市東區佐川洞952	東 亞 大	專 講	
朴 九 秉	大淵洞難民住宅 B. 14號	釜 山 水 大	專 講	
朴 珉 植	서울特別市城北區東岩洞 156	高 麗 大	課 外 導	
朴 炳 日	京畿道廣州郡九川面城內里 27—1	經濟企劃院	財 經 官	理 論 經 濟 學
朴 宗 漢	서울特別市城北區城北洞 190—29	行政大學院	講 師	
朴 贊 癸	永登浦區黑石洞 44—5	中 央 大	專 講	統 計 學
朴 贊 應	永登浦區文萊洞 610			理 論 經 濟 學
朴 洪 立	釜山市東萊區明倫洞485	釜 山 大	講 師	計 量 經 濟 學
奉 明 根	平澤邑通伏里79	平 澤 女 高	教 師	農 業 經 濟 學
徐 仲 一		釜 山 大	講 師	一 般 經 濟 史
成 炳 德	釜山市東區草梁洞288	東 亞 大	講 師	國 民 論
孫 炳 圭		서 울 大	專 講	
沈 永 根		青 丘 大		經 營 學
沈 鉉 成		經濟企劃院		理 論 經 濟 學
嚴 琦 燮	서울特別市永登浦區上道洞 134—83(12동5반)	東亞大學院	講 師	近 代 經 濟 史
芮 春 浩	釜山市影島區蓬萊洞四街12	全 南 大	專 講	
吳 昌 植		서 울 大		
王 仁 權	水原市西屯洞農大官舍33	國 際 大	講 師	
劉 奉 哲	서울特別市中區藝館洞97	高 大 學 院	碩 士 程	
柳 澤 熙		青 丘 大	專 講	
俞 好 根	大邱市新川洞916	延 世 大	講 師	
李 圭 洹	서울特別市西大門區滄川洞 9—7			

李奎華	西大門區大峴洞 39—2	專講	統計學
李德永	鍾路區東崇洞 128—13	漢陽大 講師	社會政策
李相直		東國大 講師	農業經濟學
李容達		東亞大	簿記學
李鍾燭		中央大 助教	農業經濟學
林炳潤	서울特別市西大門區老姑山 洞 5—34	서울文理實大 專講	理論經濟學
장찬섭	京畿道楊州郡議政府邑議政 府里第一教會	延世大學院 博課程	
田明鎭	서울特別市鍾路區通義洞 22—3	貿易振興社 貿公	
鄭壹和	서울特別市永登浦區鷺梁津 洞 205—42	忠清大 專講	財政學
趙炳泰	釜山市西區西大新洞三街 127	東亞大學院 碩課程	經營學
趙容濟	서울特別市麻浦區孔德洞 247—2	中央大 助教	經營學
趙最榮	全北沃溝郡米面新觀里 646		
朱宗桓	서울特別市城北區敦岩洞山 62	漢陽大 專講	理論經濟學
陳世仁	東大門區普門洞 二街 167	建國大 專講	現代經濟學
陳興福	麻浦區大興洞 10		
崔元圭	釜山市西區東大新洞三街 66—5	東亞大 講師	一般經濟史
崔泰鎬	서울特別市龍山區元曉路一 街 31—7	崇實大 講師	韓國經濟史
洪永杓	釜山市西區東大新洞三街 66	東亞大 講師	農業經濟學
黃夏鉉		漢陽大 專講	一般經濟史